

가을전어가 사라진 이유



연운열의
자유보감

전어는 예로부터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알려져 왔다. 전어는 가을철에 살이 오르고, 맛이 좋기 때문에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뜻으로 '가을전어'로 알려져 왔다.

"가을 전어 대가리에는 깨가 서말"이라는 속설을 증명하기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전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어의 다른 영양분은 계절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가을전어에는 지방성분이 최고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가을 전어는 회감으로도 좋지만 구울 때 생선기름에서 기인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까지 생기기 되었다.

전어는 전체 생선 중에서 멸치와 함께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고(高)물가 시대에 서민들이 즐기기에 걸맞은 어종이었지만, 조업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한번 출항시 많은 양을 잡아 오

는데, 선도유지가 중요해서 미리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폐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햇전어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어 조업을 포기하는 중소수산업 종사자는 늘어만 가고 설상가상으로 유통비, 인건비마저 증가하여 전어 대신 다른 어종으로 어획을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실, 전어는 십수년 전만 해도 어촌마을 선창가에 가면 배에서 한 바가지 가득 줄 정도로 산 생선이었다. 그러나 그건 다른 고급 어종이 많이 어획되었던 때의 인심이고, TV 방송 매체 등에서 먹거리 기행에 전어가 소개된 이후로 일반인들은 정식 횡감이 아닌 잡어를 쓴 맛에, 특별한 맛에 먹기 시작했으니 이전 한 철의 대표적인 횡감 생선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

전어는 가을이 지나면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비늘만 벗기고 뼈 채 두툼하게 썰어낸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에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상인들이 열망하여 서울에서 파는데, 귀천이 모두 좋아하였으며 그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

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했다'고 쓰여 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발간한 어류도감에 따르면 "전어는 태평양 서부(한국, 일본, 중국, 동중국해, 대만, 홍콩)지역에 분포하고 서식지역은 내만성이 강한 어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을 구성하는 성분인 DHA 및 EPA가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고, 뇌혈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DHA성분은 인지능력 및 기억력, 집중력 등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혈관 내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관건강에 효과적이다. 한편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을 함으로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재생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화를 예방한다.

이러한 전어의 고소한 풍미와 치유효과를 만끽하려면 이제는 가을까지 기다리기 보다 훨씬 빠지러야 할 것이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오늘의 운세 12월 1일 (음 11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운세. 48년생 타협을 하면 부유해질 기회를 얻는다. 60년생 부모가 없애 재물을 생각하지 말자. 72년생 감정절제기 일을 반전. 8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갈 것.



37년생 행복은 건강에 있으니 항상 체크. 49년생 유혹이 있는 날이니 갈 길만 가도록. 61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 청소를 기운을 향상하라. 73년생 조직에 감사함을 갖도록. 85년생 주변을 돕는 것도 매일이 크리스마스이다.



38년생 구두쇠 작전보다는 자식에게 조금은 나눠줘도. 50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62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혁신인 한심함을 버려라. 74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86년생 이럴듯 여타러려 저런듯 여타러려.



39년생 집안의 경사가 이어진다. 51년생 답답해도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긴다. 63년생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셔도 세우것을 얻어먹는 기회가 온다. 75년생 늘 선배를 대접하라. 87년생 강을 건너어도 지혜롭게 배는 보관해야.



40년생 나이가 들면 나눠줘야 대접받는다. 52년생 송사에 휘둘리지 않게 편을 들지 마라. 64년생 궁정의 마음으로 상담하라. 76년생 이익이 미미하나 실망하지는 않도록. 88년생 직접적이고 방법적인데만 매달리면 결과가 우물.



41년생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된다. 53년생 비방하는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이 더 크다. 65년생 행복에 취해서 남편을 소홀히 하지 마라. 77년생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운세. 89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42년생 마음대로 행동하다 곤경에 빠진다. 54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니 길조이다. 66년생 재투자보다는 은행에다 적금을 드는 것이. 78년생 이제라도 배우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90년생 조금씩 결정하면 후회를 하기마련.



43년생 혼란한 마음을 재정비하여 실행. 55년생 지치지 쉬운 날이니 휴식을 하도록. 67년생 많이 마셔서 취하는 날이니 음주는 금물. 79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91년생 회사의 중요한 일은 떠벌이지 않도록.



44년생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지 하는 일이 순조롭다. 56년생 이사에 용기를 내라. 68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고 기술력을 향상하게 시켜라. 80년생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돌파라. 92년생 바쁘더라도 조상님제사에는 참석해야.



45년생 재물이 늘어도 수전노인 불쌍한 내 인생. 57년생 새 인연으로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라준다. 81년생 기침이 이어지면 숨기지 말고 병원을 가 보도록. 93년생 자금줄이 당장은 어려워도 해결은 된다.



46년생 입방아에 오르니 말조심. 58년생 앞면 이가 빠지고 일이 해결. 70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이득이 발생. 82년생 사랑하는 사람이 한눈을 판다면 바로 헤어져라. 94년생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신념대로 행동.



47년생 성실하다 보니 어제의 고난이 행복을 선사. 59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친구를 경계. 71년생 갈광한 거절이 관계를 좋게 한다. 83년생 겸박하게 오늘 걸으면 내일은 복이 누적된다. 95년생 사랑하는 반려견이 아프서 슬퍼진다.

위믹스 사태, '투자자 보호'는 누구의 책임일까



기지수첩
이영석
(자본시장부)

아이러니하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의 다툼은 양쪽으로 갈라져있지만, 양쪽에서 내세운 가치는 모두 '투자자 보호'다. 그렇다면 양쪽에서 내세운 투자자 보호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뒷전으로 밀려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 누가 더 많은 돈을 잃었는지 자랑 아닌 자랑의 행렬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산업에 견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공시와 같은 기초적인 규제 조차 없다.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을 진

행하고 있지만, 입법과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계적인 입법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공백을 타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시작된 최소한의 몸부림이 5대 거래소의 연합체인 DAX A(타사)다. 루나·테라 사태 때만 하더라도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고, 다시금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이에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동 대응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규제가 없는 상황을 방관하기 보다는 거래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동합의체를 통한 자율규제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타사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구도 아닐뿐더러, 의사결정 절차의

비공개 등은 당사 측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사태 발미를 제공한 위메이드에게 면죄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를 진정 고려했다면 행동 이전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올 초에도 사전 공시없는 대량매도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소명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과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상장폐지는 없다는 제스처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사실 어느 한쪽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다.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오히려 과해보일 수 있는 보호 조치까지도 필요해 보인다. /ysl@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도심의 사찰

연말연시의 대표적 행사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꼽을 수 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해넘이와 해돋이에 몰리는 자동차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가는 듯 보인다. 반면 사람들이 조용히 찾는 곳이 있다. 도심안의 사찰이다. 소란스러움을 피해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거나 내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발길을 재촉한다. 잠시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연말에 어찌면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사찰 프로그램으로는 템플스테이가 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오롯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해준다. 거기에 더해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큰 만족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라는 시간을 내야하고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게 부담인 사람도 있다. 그렇게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도심 사찰을 찾는다. 연말연시 도심 사찰은 법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몰린다. 법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도 여러 많은 사찰이 있다.

도심사찰은 공간의 한계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기는 힘들지만 법회는 항상 열린다.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도 연말연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분주한 일상과 거리를 두고 차분한 성찰의 기회를 원하는 분들이다. 해가 넘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다르다. 지극히 살아온 일 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이 이어지는 것이다. 소홀히 흘려보내기엔 아깝고 귀중한 시간이다. 연말연시 바쁜 시간 속에서 도심의 사찰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여는 밝은 에너지를 얻어가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1	6		3	7		
5	4						6	3
		6		4		2		
7	6						3	8
4	1						7	2
		9		7		3		
6	7						5	1
		4	1		2	6		

		5		8		9		6
				1		2		
1		8		6		9		2
4		3				8		7
9		6					1	3
3		2		5		4		8
		6		4		7		1

정답

2	6	9	2	8	1	7	5	3
1	9	8	7	6	3	2	4	5
7	2	3	9	1	5	6	8	4
2	1	6	5	9	8	3	7	4
9	1	5	1	3	7	8	6	2
8	3	7	6	1	2	5	9	4
5	8	2	1	7	4	9	3	6
3	9	1	8	2	6	7	5	4
6	7	4	3	5	9	1	2	8

6	1	2	3	4	5	6	7	8	9
9	3	5	8	2	6	1	7	4	8
8	2	7	1	9	3	5	6	4	8
3	9	1	7	8	4	2	9	6	5
7	6	9	3	1	2	8	5	4	7
2	8	9	6	5	3	4	1	7	2
2	7	6	5	9	3	8	1	4	7
5	8	1	2	7	1	6	3	9	8
1	9	3	6	4	8	7	9	2	5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180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